

교내 도로 보행 안전 개선 필요

유경민 기자 gmni0313@khu.ac.kr

【서울】대면 학기 개강과 함께 보행자가 급증하면서 ‘교내 보행 안전’과 관련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교내 도로에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혼용돼 있는 곳이 많다. 「도로교통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구역)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3항에 의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이에 교내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조심하기 위해 도로 양쪽 가장자리로 통행하지만,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이동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보행자가 도로 안쪽까지 진입하는 경우가 벌어진다.

특히 문과대학과 경영대학 사이의 도로는 짧은 시간 내에 학생 통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으로, 사고 위험이 더욱 크다. 이 구간은 쉬는 시간이면 다음 수업에 가기 위해 이동하는 학생들로 붐빈다. 또한 도로 한쪽에 가로수가 서 있어 학생들이 차량을 피해 길 가장자리로 다니기에도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에 학생과 차량이 뒤엉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킨 문과대, 경영대 앞

(사진=유경민 기자)

강의실에 가기 위해 문과대학 앞을 자주 통행하는 정재성(국어국문학 2020) 씨는 “쉬는 시간에 이동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겹겹이 지나가 바로 옆에서 차가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며 “이동하며 항상 안전에 주의하지만,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더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1항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보도는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해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

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무관리처 관리팀 담당자는 “보행 안전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차량 안전사고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인도와 차도 구획 시 교차 및 병목현상이 발생하거나 차량 운행에 제한이 있는 곳이 생길 수 있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내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해 총무관리처는 “현재 우리학교 구성원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고 총무관리처 또한 교내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사고란 ‘아차’ 하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조심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총학생회(총학) 역시 안전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학은 “교차로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곳에는 교통관리를 해주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며 “킥보드 교내 통행금지 정책을 마련한 것과 같이 교내 안전과 관련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시 빠른 대처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학본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학교처럼 보행 도로와 차량 운행 도로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은 곳은 안전 우려가 커진다”며 “보행 중에도 주위를 잘 살피고 과도하게 무리 지어 다니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치회비 서울 증가 국제 미미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의 자치회비 납부율이 지난해 2학기 대비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첫 번째 증가다. 이에 반해 국제캠퍼스(국제캠) 자치회비 납부율의 변화는 미미했다.


이번 학기 서울캠의 자치회비 납부율은 47.1%로 집계됐다. 지난해 2학기 43.4% 대비 3.7% 증가했다. 재학생 13,560명 중에서 6,385명이 납부했으며, 총 납부 금액은 6,066만 7,000원이다.

이번 학기 자치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2학기에 비해서는 납부율이 10%가량 낮다. 2019년 2학기 서울캠 자치회비 납부율은 57.1%로, 재학생 13,655명 중 7,799명이 납부했다. 총 납부 금액은 7,403만 500원으로 이번 학기와 약 1,300만 원 차이가 난다.

이번 학기 자치회비를 납부한 강민숙(국어국문학 2021) 씨는 “학교 생활에 유익한 점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자치회비를) 납부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봉건우(자율전공학 2017) 학생회장은 “대면학기가 확정이 되면서 기대감도 높아졌고, 때문에 자치회비 납부율이 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 4면으로 이어짐



2023학년도 1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청 안내

“학생설계전공”이란?
학생 스스로 융·복합 학문분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의미합니다. 특정 학문 영역에 제한되어 있는 전공 구성 및 교과목 개설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학문 체험이 가능합니다.

1.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2학기 이상 이수하고(편입생은 1학기) 신청 당시 재학 중인 자 (단, 수업연한초과자 신청 불가)
나. 신청 당시 33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3 이상인 자
다. 단, 경영대학 소속 학과를 관련학과로 포함하는 경우 신청 당시 선수과목 3강좌(회계원리, 경영통계학, 경제학원론)를 이수하여 각각 모두 A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직전학기까지 전체 평점평균이 4.0이상 이어야 함

2. 신청기간: 2022.10.31(월) ~ 11.11(금)까지

3. 신청방법: 아래 서류를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 메일로 제출
가.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1부
나. 학생설계전공 학업계획서 1부

다.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편성표 1부
라. 성적증명서 1부

4. 학생설계전공 신청 및 선발 절차

| | |
|--------------|---|
| 학사지원팀 | 학 생 |
| 학생설계전공 신청 공고 |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선정 및 교육과정 편성 / 관련학부(과) 학과장 및 행정실 확인 |
|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 | 학 생 |
| 전공신청 심의 | 신청서류 소속C 학사지원팀에 제출 |
| 교육과정운영위원회 | 학사지원팀 |
| 교육과정 심의 | 승인 여부 통보 및 이수 안내 |

5. 심사기준(100): 전공명 및 학위명의 타당성(10), 전공목표와 교육과정의 적합성(30), 교과목 구성의 체계성(30), 학업계획서 충실성(30)

6. 선발 결과 발표: 2022. 07. 15(금) 예정(학생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가. 학생설계전공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생설계전공 개발 공모전을 시행함. 우수상 수상자 제출 서류를 첨부하였으니 작성 시 참고 바람
나. 학생설계전공 안내 동영상 URL 안내
<https://youtu.be/yzcG0nnbtldo>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C : 02)961-0053~4, khsa0032@khu.ac.kr,
국제C : 031)201-3038~41, khwa5032@khu.ac.kr

붙임: 1.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양식 각 1부.
2. 학생설계전공 가이드북 1부.
3. [참고자료] 2022학년도 학생설계전공 개발 공모전 우수상 수상자 제출서류 각 1부.

교무처장